

칠성본풀이

이수자(李秀子)

- 차례 -

- I. 머리말
- II. 칠성본풀이의 자료 및 내용과 신화적 특징
- III. 칠성신의 신적 성격과 직능
- IV. 칠성본풀이가 구연되고 있는 제의의 성격
- V. 뱀을 풍농신, 혹은 부신으로 관념했던 인식의 기저
- VI. 칠성본풀이의 문화사적 위상과 의의
- VII. 맺음말

I. 머리말

<칠성본풀이>는 집안의 부를 이루게 해주는 뱀신[사신(蛇神)]인 '칠성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내력을 설명하고 있는 신화다. 큰굿이 행해질 때는 항상 구연되는 신화로 일반신본풀이에 해당하며, 제주도 12본풀이 중 하나에 속한다. 심방들은 현재 이 본풀이를 제주도의 큰굿 중 '각도비뉼'과 같은 제의에서 구연하기도 하고, 단독굿인 '칠성새남', 그리고 신년의례인 '철갈이[벨롱갱이]' 같은 곳에서도 구연한다. 칠성본풀이라는 말은 보통 심방들에 의해 구연되고 있는 신화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지만, 간혹은 이 신화가 구송되고 있는 제의의 이름으로 사용될 때도 있다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단 신화만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칠성본풀이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신화의 주인공인 칠성신의 신체가 뱀이라는 점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신의 직능이 농사를 잘 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집안의 부(富)를 이루게 해주는 신이라는 점에도 기인한다.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통해 거의 본능적으로 부를 욕망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는 인간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칠성본풀이는 뱀에 대한 신화라는 점에서 매우 고행의 신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고행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화가 오늘날까지 제주도 곳에서 살아 존재하며 심방들에 의해 구송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이나 단골들이 칠성신을 신성시하며 신앙해 왔던 것 역시 어쩌면 모두 이와 같은 인간의 부에 대한 욕망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제주도의 칠성본풀이는 그간 학계에서 꾸준하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다수의 선학들은 제주도의 뱀신앙 연구의 일부분으로 칠성본풀이를 언급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제주도의 뱀신앙 중에서는 단연 표선면의 토산당에 대한 뱀신앙이 중심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진성기는 제주도 뱀신앙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뱀신앙의 유입과정을 여러 차원에서 분류했는데, 칠성본풀이에 나오는 강남천자국 내용을 근거로 칠성신이 중국에서 유입된 뱀신앙이라고 한 바 있다.²⁾ 김영덕은 제주도에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토대로 제주도의 사신신앙을 두루 고찰하면서 사신신앙은 무속신앙의 하나로서 원시신앙형태이며, 제주도민의 생활이나 의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³⁾ 필자는 제주도 큰굿의 구조적 원형을 재구하면서 칠성신이 원래 풍농신·부신적 성격을 가진 신이며, 칠성신에 대한 제의는 농경기원신인 [세경제]에 이어 행해졌던 것으로 열두거리 큰굿 중 아홉 번째 거리에서 행해졌었을 가능성이 있고,⁴⁾ 제주도의 칠성신앙은 육지쪽 구렁이업 신앙과 상호관계가 있음을 밝혔다.⁵⁾ 이기욱은 제주도의 사신숭배신앙이 무속신앙 및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형태임을 언급하고, 농작물과 쥐, 뱀과의 상관성을 중시하여 이 신앙을 생태학적 입장에서 논하였다.⁶⁾ 문무병은 여러 고문헌에 나타나는 제주도 사신신앙의 기록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칠성본풀이 및 칠성새남을 포함하여 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사신신화와 의례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였다.⁷⁾ 현용준은 제주도 뱀신앙을 조상신·당신·일반신 형태로 분류하는 한편 칠성본풀이는 일반신 형태에 속함을 언급하고, 이러한 칠성신앙이 제주도에 가장 먼저 입도하여 후일 여타의 사신신앙을 형성시켰을 것이라 하였다.⁸⁾ 김현선은 칠성본풀이와 여러 신화를 대비 고찰하면서 칠성신의 소종래는 외지에서 왔으나 신화 내용은 제주도 본풀이의 전통적 서사문법과 깊이 관련된 독자적 요소로 짜여져 있다고 했다.⁹⁾ 양현숙은 칠성본풀이와 토산여드렛당본풀이를 문화기호학적으로 해석하여 제주도 뱀신화의 문화적 의미를 밝히고 있으며,¹⁰⁾ 박병훈은 사신에 대한 5개의 본풀이를 비교하여, 이들 본풀이들의 공통구조를 밝히고, 뱀은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신체로 관념화되어 의례를 통해 섬겨지고 있다고 하였다.¹¹⁾ 김호성은 칠성본풀이 자료 15편을 대상으로 서사내용을 비교하고 서사는 거의 동일하다 하면서 칠성본풀이는 뱀신앙을 기저로 하는 업거리 신앙에 대한 궁금증으로 발생된 후대적 신화라고 하였다.¹²⁾

이하 칠성본풀이를 논함에 있어,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제주도의 칠성본

- 1) 秋葉隆, 1932, 「제주도의 蛇鬼信仰」, 『청구학총』7, 청구학회.
탁명환, 1978, 「제주 사신신앙에 대한 소고-토산당 뱀 신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10, 한국문화인류학회.
鳥越憲三郎, 1988, 「蛇神と 兎山里の 事件」, 『耽羅』第一1號, 日本耽羅學會.
Patricia hunt, 1990, 「제주인의 뱀신앙」, 『탐라문화』1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秋葉隆·김난희 역, 1992, 「제주도의 사귀」, 『탐라문화』1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2) 진성기, 2003(초간 1966), 「뱀신앙과 제주도민」, 『제주도 무속논고』, 민속원, 200~204쪽 참조.
- 3) 김영덕, 1982, 「제주도의 사신신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4) 이수자, 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이수자, 1995, 「구렁이업 신앙의 성격과 형성 기원(1)-칠성맞이제 및 칠성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보』5, 한국민속학회.
- 6) 이기욱, 1989, 「제주도 사신숭배의 생태학」, 『제주도연구』6, 제주도연구회.
- 7) 문무병, 1992, 「제주도 사신신앙 연구」, 『제주도 언어민속논총』, 현용준 교수 화갑기념논총, 도서출판 제주문화.
문무병, 1993,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 글은 후에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2009)으로 출판되었는데, 본 논문은 후자의 자료 중 「사신신앙」글을 참조하였다.
- 8) 현용준·현승환, 1995,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 『탐라문화』1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위의 글은 이후 현용준, 2002,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에 게재되어 출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 9) 김현선, 2005, 「〈칠성본풀이〉의 본풀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 연구」, 『고전문학연구』28, 한국고전문학회.
- 10) 양현숙, 2006, 「제주도 뱀신화 연구-〈칠성본풀이〉와 <토산여드렛당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박병훈, 2007, 「제주도의 사신신앙-본풀이와 의례를 중심으로」, 『종교학 연구』26,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 12) 김호성, 2018, 「제주도 칠성본풀이의 신화적 성격 연구 : 업신앙의 제주도 이입과정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풀이는 기본적으로 육지쪽의 ‘칠성풀이’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두 신화 이름에 ‘칠성(七星)’이 공통하고 있어 일부 사람들은 두 신화가 같은 것인가 하고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엄연히 그 뿌리가 다르다. 칠성본풀이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도 큰곳에서 불리고 있는 본풀이로 뱀신인 칠성신에 관한 신화이다. 주인공이 되는 여신의 출생에 하늘의 칠성신이 관여하여 신의 이름이 칠성아가기가 되었고, 까닭에 신화 이름도 칠성본풀이가 되었다. 반면에 칠성풀이는 충남·전북·전남 등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에서 구연되고 있는 신화로, 찻김 곳이나 축원곳 같은 곳에서 구연되고 있으며, 전설 아들 7형제와 후실의 갈등을 주제로 하고 있어 계모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계모를 징치한 일곱 아들이 하늘에 올라 칠성신이 되기에 신화 이름이 칠성풀이가 되었다. 이 신화는 서사구조가 제주도의 <문전본풀이>와 같은 계통인 것으로 연구된 바 있는데,¹³⁾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 중의 하나인 문전본풀이 같은 신화가 육지쪽 무속에서도 불렸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다음에는 뱀신에 관한 신화인 칠성본풀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칠성본풀이의 자료와 내용 및 신화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서는 칠성신의 신적 성격과 직능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다음에는 이 본풀이가 구연되고 있는 제의의 성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어서는 뱀을 풍농신 혹은 부신으로 관념할 수 있었던 인식의 기저를 논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칠성본풀이의 문화사적 위상과 의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칠성본풀이의 자료 및 내용과 신화적 특징

먼저 칠성본풀이가 채록·수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이어서는 신화 내용과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칠성본풀이 자료들

칠성본풀이가 소개되어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가능한 심방이 직접 제보·구송한 것 중 책으로 출간된 자료만을 소개하기로 한다.¹⁴⁾

- [1] 赤松智城.秋葉隆, 1937, 『朝鮮巫俗の 研究』上, 조선총독부, 칠성본풀리(박봉춘구송본), 519~525쪽.
- [2] 진성기, 1968, 『南國의 巫歌』(제주도무가전집), 제주민속문화연구소간, 칠성본 2편(이무생 구송본 / 고창학 구송본), 174~194쪽.
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칠성본(구송자 상동), 146~161쪽.
- [3] 장주근, 1973, 『韓國의 民間信仰』資料篇, 金花舍(東京)(고대중 구송본)
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칠성본풀이(고대중 구송본), 202~210쪽.

13) 이상의 칠성풀이에 관한 글은 서대석, 1988, 「칠성풀이의 연구」, 『진단학보』65, 진단학회. / 서대석 글, 칠성풀이 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참조.

14) ① 이 외에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에도 ‘칠성본풀이’가 소개되어 있으나 이것은 안사인 구연본으로 제보자가 [4]와 같아 별도로 소개하지 않는다.

② 김호성, 2018, 위의 논문에는 칠성본풀이 자료 15편이 소개되어 있다. 이 중 일부는 새로운 자료이나 책으로 출간된 것이 아니라 소개하지 않는다.

- [4] 현용준, 1980,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칠성본풀이(안사인 구송본), 419~431쪽.
- [5] 문창현, 1982, 『풍속무음』上,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총서12-1, 칠성본(문정봉 구송본), 399~430쪽.
- [6] 문무병, 1998,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칠성본풀이(한생소 구송본), 325~352쪽.
- [7] 강정식·강소전·송정희, 2008,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칠성본풀이>본풀이(이중춘 구송본), 597~603쪽.
- [8]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편, 2009, 『이용옥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칠성본풀이, 363~390쪽.
- [9]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편, 2010, 『양창보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칠성본풀이, 285~307쪽.
- [10]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편, 2013, 『고순안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칠성본풀이, 349~372쪽.
- [11]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편, 2015, 『서순실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칠성본풀이, 315~336쪽.

이상이 심방이 직접 구송한 것을 채록한 자료들이다.¹⁵⁾ 이상의 11편 자료 중 박봉춘 구송본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채록된 자료(1930년대 초)라는데 의의가 있고, 『제주도 무속자료사전』(이하 『사전』)으로 언급함에 실려 있는 안사인 구송본은 제주도 무속의 의례상황과 함께 채록·소개되고 있어, 칠성본풀이가 어떤 상황에서 구송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히 이 두 자료를 중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11편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문정봉(덕수리·신평리), 고창학(창천리), 박봉춘(서귀포읍), 이무생(표선리) 구송본은 제주도의 남쪽 지역에서 채록된 것이고, 나머지는 제주시를 포함 제주도의 북동부 지역에서 채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녀 성별로는 이무생, 문정봉, 이용옥, 고순안, 서순실 자료는 여성 심방의 것이고, 나머지는 남성 심방의 것이다.

2. 칠성본풀이의 내용

제주도 굿에서는 신화인 본풀이를 구송하기 직전에 늘 ‘들어가는 말미’를 한다. 이것은 신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먼저 이 부분을 소개한 후에 본풀이 내용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1) 들어가는 말미와 제의적 기능

본풀이를 구송하기 바로 직전에 언급되는 ‘들어가는 말미’는 대개 “(먼저 신의 이름을 말하고) 난산국 신평저 흐는디, 흐전흙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중춘 구송본의 경우는 칠성본풀이를 구송하기에 앞서 “칠성한집 난산국 신평건 본산국드레 제노립서예~”라고 있다. 이것은 ‘이제 칠성한집이라는 신이 생겨난 근본을 풀려고 하니 칠성한집 신은

15) 심방이 직접 구연한 것은 아니나 칠성본풀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타의 자료도 있다.

① 김순이, 2016, 『제주신화』, 여름언덕, 267~282쪽 참조

② 강순희·여연, 2018, 『조근조근 제주신화』3, 지노, 177~204쪽 참조.

제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 내려오시라'는 뜻이다. 내려오시란 말은 곧 하강하시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는 곧 제의가 행해지고 있는 곳으로의 신의 현현(顯現, 나타남)을 기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들어가는 말미를 보면, 본풀이의 주인공이 되는 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과 같은 무속의례에서 본풀이를 구송하는 목적이나 의의는 바로 해당되는 신의 제청에의 현현을 기원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신화와 의례가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 의미단락 별로 본 칠성본풀이의 내용

칠성본풀이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에 있어 우선 당면하는 문제는 11편 중 어떤 자료를 중시해서 그 내용을 소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11편의 자료들은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내용에 다소간 차이가 있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정된 지면에서 이들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 분량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중시하여 내용을 의미단락 별로 나누고, 그 세부내용은 서사적 논리를 중시하며, 가능하면 다수의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을 중시하여, 이러한 내용이 신화의 원래적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칠성본풀이의 내용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¹⁶⁾

신화는 의미단락 별로 나누면 [출생담 - 성장과정담 - 공업담 - 신으로의 좌정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칠성본풀이도 신화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출생담은 칠성아가 태어나기까지의 내용이고, 성장과정담은 성장한 후 부모와의 일시적인 헤어짐과 임신, 그리고 추방되기까지의 내용이며, 공업담은 제주도의 함덕 및 도성 안의 송씨 집에서 신병을 주거나 아니면 부자로 만들어주어 신적인 위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좌정담은 여덟 마리의 칠성신들이 각자 자신들이 좌정할 장소를 정하고 헤어지는 내용이다.

(1) 주인공인 칠성아기의 출생담

주인공인 칠성아기의 출생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온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칠성신에게 칠성제를 드리고 딸을 낳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찰에 원불수룩을 드리고 딸을 얻는 것이다. 전자를 칠성기자형이라 하고, 후자를 사찰기자형이라 하면서 내용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칠성기자형 출생담의 내용] 장설옹과 송설옹 부부가¹⁷⁾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 없어 근심을 했는데, 절에서 대사가 와서 칠성불공을 드리면 집도 부자가 되고 자식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부부는 칠성제 지내는 법을 물어 칠월칠석날 밤 장광 뒤에 칠성단을 마련해 놓고, 제상, 병풍, 초석, 밥그릇, 제수, 찻물, 포 등을 각각 7개

16) 독자의 편의를 위해 우선 칠성본풀이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칠성아가 태어나 일곱 살이 되자 부모가 집을 떠나게 되었다. 칠성아기도 부모와 함께 가고자 몰래 따라나섰다가 홀로 떠발에 남겨지게 되는데, 지나가던 중이 임신을 시킨다. 집으로 돌아온 부모는 딸이 임신한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무쇠석곽을 만들어 그 안에 딸을 넣어 바다에 버린다. 석곽이 제주도 함덕에 닿았을 때 7명의 잠녀가 이를 발견하고 어부의 도움으로 석곽을 열어보니 뱀들이 있어 더럽다고 내버린다. 잠녀들은 모두 병이 나고 물질을 해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게 되자 문점을 하여 칠성제를 지내니 병도 낫고 물질도 잘 되어 부자가 된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칠성당을 마련하여 모시니 함덕마을 전체가 부자가 된다. 칠성신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가 산지물가에 있다가 이곳에 물길러 온 송칩 외동딸을 따라 그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에서는 이 신들을 잘 모셔 큰 부자가 된다. 이후 칠성신들은 이 집을 나와 각자 좌정할 곳을 맡아 헤어진다.

17) 부부의 이름이 바뀐 자료도 있으나 대부분의 자료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 본고에서도 이를 따랐다.

씩 놓고 정성을 다해 칠성제를 지낸다. 하늘의 여섯 성군이 내려와 음감하고 각기 명과 복, 생불 등등 복될 것을 주고 가는데, 넷째 성군은 제자를 가르치다가 늦게 와 음감을 하고, 떡 두 개를 소매 속에 넣고 돌아간다. 몰래 따라온 제자가 이를 보고 추궁하니, 넷째 성군은 제자에게 떡을 주면서 그것으로 송설용 부부의 눈을 만져 당달봉사를 만들고 오게 한다. 얼마 후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 모두 죽게 되었는데, 장설용 부부는 장님이라 목숨을 건지게 되니, 넷째 성군이 다시 푸른 명주 석 자를 가지고 와 눈을 뜨게 해준다. 부부는 칠성제 드린 덕분에 목숨을 구한 것을 알고 다시 정성을 다해 칠성제를 드리는데, 결과로 유태하여 딸아이를 낳고 칠성아기라 이름 짓는다.

[사찰기자형 출생담의 내용] 장나라 장설룡과 송나라 송설용 부부가 천하거부이나 오십이 되도록 무자하여 근심하다가 동개남 상저절에 송낙지와 가사지, 그리고 상백미 등을 많이 시주하고 원불수룩을 드리는데, 시주한 것이 백 근에서 한 근이 모자라 딸아기를 얻는다.

(2) 칠성아기의 성장 과정담

* 이 내용은 여러 자료에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성장과정담의 내용] 칠성아기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 부부가 하늘공사 지하공사를 살려 가게 되어 느진덕정하님(여종)에게 아이를 잘 돌봐주면 나중에 돌아와 종문서를 돌려주겠다 하며 아이를 부탁하고 떠나간다. 그런데 칠성아기는 부모와 함께 가고 싶어 몰래 가마 부출에 붙어 따라가다가 힘에 부쳐 손을 놓으니 묵은각단 새각단 밭에 떨어져 홀로 남게 되고,¹⁸⁾ 무서워서 울다보니 얼굴은 사람이요, 몸은 뱀처럼 변한다[인면사신(人面蛇身)]. 마침 절에서 권재를 받으로 내려오는 대사가 길을 지나고 있어 칠성아기가 울면서 부모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니 그냥 지나친다. 두 번째 대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만난 대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니, 대사가 칠성아기의 흘목을 잡고 일곱 번을 죄어버리니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대사가 오장삼을 만들어 칠성아기를 그 안에 넣고 다니다가¹⁹⁾ 장설용 집의 말팡돌 아래 묻어두고 간다.

장설용 부부는 딸아기가 없어졌다는 여종의 서신을 받고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지만 딸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루는 딸이 부모의 꿈에 현몽하기를, 내일 세 명의 종이 권재를 받으러 올 텐데 첫째와 둘째는 그냥 보

18) 고대중 자료에는 칠성아기가 하님이 물길러 간 사이 하님을 찾으러 나가다 길을 잃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사인 자료는 칠 일이 되었을 때 칠성아기가 혼자 궁기(구멍)로 나가는 것으로, 한생소 자료에는 부모와 헤어진 지 백일 되었을 때 칠성아기가 하님에게 바깥 구경을 하고 싶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자료들은 모두 칠성아기가 부모와 함께 가고 싶어 몰래 가마 부출을 잡고 가다가 땅으로 떨어져 혼자 남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 칠성아기가 임신을 하게 되는 상황은 자료에 따라 다소 다르다. 박봉춘 자료에는 셋째 종이 곁에 넣어 데리고 다니다가 3년 후 각시를 삼은 것으로, 이무생, 고창학 자료에는 밤에 품에 품고 자는 것으로, 문정봉 자료에는 셋째 종이 품에 안고 다니다가 품사랑을 하여, 고대중 자료에는 종이 칠성아기의 흘목을 잡고 일곱 번을 죄어버리고 오장삼을 만들어 싸서 말팡돌 아래 놓는 것으로, 안사인, 고순안, 서순실 자료에는 종이 칠성아기를 만난 후 바로 오장삼에 싸서 말팡돌 안에 넣어두고 가는 것으로, 이용옥 자료에는 셋째 종이 아기의 상가마를 손으로 쓸어서 임신을 시키는 것으로, 한생소 자료에는 종이 칠성아기의 울음을 달랜 후 상가마를 오른쪽 왼쪽 삼세번을 내리 쓸고 이어서 아기씨의 흘목을 일곱 번을 불근불근 심으며 오장삼에 넣어 낮에는 권재를 받으러 다니고 밤이 되면 품안에서 잠을 재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고 세 번째 중에게 물어보면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다음날 과연 그런 일이 있어 셋째 중에게 물었더니, 중은 얼굴색이 변하며 딸아기가 가까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하였다. 부부가 수상하게 생각하고 중을 문책한 후 포박을 하려 하니, 중은 도술을 부려 광풍을 일으키고 구름과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어디선가 아기씨 소리가 들렸다. 부부가 딸아기를 찾고 보니 새끼 일곱을 배고 있어,²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며 딸을 죽이고자 하였다. 장설용 부인이 어떻게 여덟 생명을 죽일 수 있느냐면서 차라리 무쇠석곽을 만들어 멀리 보내자 하니, 장설용이 무쇠쟁이를 불러다 무쇠석곽을 만든 후 그 안에 딸을 얹히고 야광주를 물려²¹⁾ 동해 바다에 띄워 보낸다.

(3) 신으로의 공업담

* 칠성본풀이를 자료를 보면, 공업담 내용이 굉장히 짧은 자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자료는 그 내용이 아주 긴 것도 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신들의 노정기(路程記) 때문이고, 실제로 칠성신들이 자신의 위력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둘, 혹은 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중심으로 공업담의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공업담의 내용] ① 무쇠석곽이 조선팔도 바다의 ~~~(A 노정기)~~~여기저기를 떠다니는데 진도의 김선주가 대국으로 장사를 다니다가 이것을 발견해 배에 싣고 가장사를 했는데 큰 부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 석곽을 위하여 했지만 진도의 본향신이 질투를 하여 다시 바다에 버려진다.

② 석곽이 ~~~(B 노정기)~~~를 거쳐 제주도의 함덕에 닿자 일곱 잠녀가 이를 발견하여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을 하며 싸우고 있었는데, 고기를 낚으러 온 하르방이 이를 보고 말리며 무쇠석곽을 열어주니 그 안에 뱀 여덟 마리가 있었다. 잠녀들이 놀라 모두 더럽고 흉칙하다고 내버렸는데, 어부 하르방은 이 뱀들을 모시다가 집안에 모시니 큰 부자가 되었다. 잠녀들이 뱀신을 내버린 이후 모두 눈병, 입병, 종기, 부스럼 등 온몸에 걸쳐 병이 나고, 물질을 해도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어(이원신 무당에게) 문복을 해보니, 바깥에서 온 신을 학대한 죄라 하며 떡도 일곱, 밥도 일곱, 술도 일곱 잔을 놓고 칠성코사(칠성제)를 드리라 했다.²²⁾ 잠녀들이 그 대로 하니, 병도 낫고 물질도 잘 되어 큰 부자가 되었다. 함덕 사람들이 이를 보고 칠성당을 만들어 놓고 함께 위하니 마을 전체가 다 큰 부자가 되었다. 함덕의 본향신이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지 않고 칠성신만 위하니 화가 나서 이 신들을 쫓아낸다.

③ 칠성신들은 도성 안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C 노정기)~~~를 거쳐 성안의 산지물가에 도착했다가 그곳에 물길러 온 송님의 외딸아기를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간다. 송님의 부인이 칠성신들을 보고 놀라서 더럽다고 박대를 하니 여러 가지 신병

20) 양창보, 이용옥 자료에는 칠성아기가 새끼 여섯을 배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나머지 모든 자료에는 새끼 일곱을 배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본고에서는 새끼 일곱을 배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적었다.

21) 이 내용은 박봉춘 구송본에만 나온다.

22) 안사인 구송본에는 칠성새남, 혹은 전새남굿을 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다른 자료들에서는 모두 칠성제, 혹은 칠성코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오기에 이렇게 정리했다.

을 앓는데, 딸아기가 우리집 조상이라며 밥을 해서 위하고 기도를 하니 어머니 병이 나았다. 어머니가 큰배염은 곡간으로 모시고, 작은 배염은 후원으로 되서 주정을 씌우고 기도를 하니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곳을 칠성골이라 이름 지었다. 후에는 칠성신들이 각자 맡을 곳을 정하고 헤어진다.

(4) 신으로의 좌정담

어명 칠성이 이제 송님 집은 이만하면 족하니 이제는 나가서 모든 세상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좋겠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사람들 눈에 뜨이기 쉽고, 얻어먹기도 힘드니 각자 몫을 나누어 헤어지자고 하자 어머니 칠성신과 일곱 자식들은²³⁾ 각자 맡고 싶은 곳을 정하고 헤어진다. 이때 신들이 차지하는 장소는 자료마다 다른데, 대체적으로 일곱 자식들은 동헌, 관청, 이방, 형방, 사령, 마방, 옥차지, 동·서 창고, 추수못, 바깥 과원, 집 뒤뜰과 같이 주로 성안의 관청과 관련된 곳을 맡는 신이 되거나 아니면 -못과 관련이 있어 물이 있는 곳을 맡고 있다. 한편 어명인 칠성신은 안고팡신이 되거나 전담부군(박봉춘 구연본)이 된다.

* 대부분의 자료에는 본풀이 내용이 이처럼 칠성신들이 특정한 공간을 맡고 헤어지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데 한생소 구송본에는 자식이 어명과 언제 다시 만날 것인지를 물으면서 칠성코사 등 여러 제일이 언급되고, 구시월에는 땅속에 있다가 삼월 삼짇날 나오라든가 하면서 동면(冬眠)과 관련된 내용도 나온다. 부군칠성은 집집마다 있다는 것, 칠성한 집은 칠성단에 명을 빌어 태어났다는 것, 칠성신은 죽는 법이 없어 아홉 번 죽어도 열 번 환생해서 살아난다는 것, 칠성신은 동티가 나면 사남(새남)을 하면 도환생을 하여 살아난다는 것, 선하염이나 치지개 같이 나쁜 모습은 보여주지 말기 등을 기원하고, 마지막으로는 먹을 양식과 돈을 계속 내어주고 굶은 액을 막아달라고 빌고 있다. 아마도 이들 중 일부는 비뚤 내용이 아닌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됨으로써 이 자료는 신화 내용이 아주 길고 풍부하게 되었다.

3. 칠성본풀이의 신화적 특징

이상에서는 칠성본풀이 내용을 소개하였다.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이 신화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칠성신의 출생담은 어느 내용이 맞을까?

제주도에서는 사신인 뱀신을 칠성, 혹은 칠성신이라 부른다. 칠성신의 출생담은 [칠성기자형]과 [사찰기자형]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런데 [사찰기자형]은 다른 일반본풀이에 나오는 여신들의 출생담과 같고, 뱀을 칠성신으로 부르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칠성기자형]은 출생에 하늘의 칠성신이 관여하여 태어났기에 그 이름을 칠성아기라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 뱀을 칠성신으로 부르게 된 이유를 근원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따라서 칠성신의 출생담은 원래 [칠성기자형]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러한 출생담은 칠성신의 신체가 뱀이기에 이를 다른 일반신본풀이의 여신들의 출생담과 구별하기 위해서 뒤뜰에서 칠성불공을 드리고, 하늘에 있는 칠성신의 도움으로

23) 자료에 따라서는 5녀(이무생 구송본), 혹은 6녀(이용옥 구송본)까지만 언급되기도 하지만, 많은 자료에 어머니와 일곱 자식이 등장하고 있어 이렇게 정리했다.

태어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신화는 뱀신에 관한 신화이기에 태어나는 방법을 남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칠성기자형]은 특이하게도 박봉춘, 문정봉, 이무생, 고창학 구연본 등 제주도의 남쪽지역 자료와 양창보 심방의 자료에 나온다. 반면에 [사찰기자형]은 양창보 자료를 제외한 제주도의 북동부 지역 자료에 모두 나온다. [칠성기자형]이 뱀을 칠성신으로 부르게 된 이유를 근원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신화의 원래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칠성본풀이에 관한 한 남쪽지역 자료들이 더 고품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2) 뱀신의 이름이 칠성신인 이유

칠성신은 그 신체가 뱀이다. 칠성본풀이를 구연하면서 칠성신을 모신다는 것은 뱀을 신성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본풀이에도 나오는 것처럼 뱀을 보면 징그럽고, 추하며, 무섭고, 공포스럽다고 생각하여 혐오하고 도망을 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뱀들을 신성시하며 신으로 신앙할 수 있을 것인가?

칠성신은 신체가 뱀이기에 탄생하는 곳도, 출생하는 방법도 제주도 큰곳 내의 일반신본풀이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 칠성신이 태어나는 곳은 밭이다. 이 본풀이의 들어가는 말미 부분을 보면(안사인 구송본), '칠성님 난산국은 강남 목골 미양산 고장남밭 질친남밭서 솟아납던 일곱칠성입네다.'라 하고 있는데, 이는 곧 칠성신이 강남 목골 미양산에 있는 고장남밭 질친남밭에서 태어났다는 뜻이다. 이 신화의 주인공이 뱀이기에 태어난 곳이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신화는 뱀의 출생담이기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출생 방법도 남다르게 되어 있다.

칠성본풀이 같은 신화를 맨 처음 창조한 사람들은 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 그리고 혐오감정을 없애고 뱀을 초월적이고도 신성한 존재로 그려내기 위해 출생에 하늘의 북두칠성이 관여하는 것으로 신화화했다. 그래서 칠성단을 만들어 칠성불공을 드리고, 칠성신의 축도 속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하여 이름도 칠성아기, 칠성신이라 불렀던 것이다. 뱀을 하늘의 북두칠성과 상동성(相同性, homology)을 가지게 함으로써 보다 신성성을 획득하도록 한 것이다. 풍농신, 혹은 부신인 뱀과 하늘의 칠성신이 서로 상동성을 갖도록 한 것은 그 모양의 유사성(相似性)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뱀을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과 결부지음으로써 뱀은 아주 초월적이고도 신성한 존재가 되었다. 결과로 뱀들은 칠성신, 칠성님, 칠성한집, 안칠성, 밭칠성, 혹은 부군칠성 등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다. 뱀을 이처럼 하늘의 북두칠성과 상관성을 갖게 하고, 또한 그 이름도 칠성신으로 불리도록 한 것은 결국 뱀을 초월적이고도 신성하게 인식토록 하기 위한 일종의 신화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전략은 칠성본풀이와 같은 신화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늘의 북두칠성을 신성시했던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아야 한다.

3) 숫자 7에 대한 성수(聖數) 인식

칠성본풀이는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이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어서, 많은 화소에 숫자 7이 중시되고 있다. 칠성단을 마련해 놓고 칠성불공을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칠성불공을 드리는 날도 칠월칠석이다. 또한 여신의 이름도 칠성아기, 혹은 칠성신이고, 칠성아기

가 부모와 이별하고 임신을 하는 나이도 일곱 살이다. 그리고 칠성아기가 낳는 자식들의 숫자도 일곱이다. 또한 바다 건너 제주도의 함덕에서 칠성신이 들어있는 무쇠석곽을 처음 목격하는 잠녀의 숫자도 일곱 명으로 나온다. 당이름도 칠성당, 마을이름도 칠성골이다. 안사인 구송본의 경우는 칠성아기가 자신의 집 구멍에서 빠져나오는 날도 부모와 헤어져서 날로부터 칠일, 즉 일렛 되는 날이라 하고 있다. 결국, 이 신화는 숫자 7을 성수로 인식하고 만들어진 우리나라 유일의 신화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숫자 7을 성수로 인식할 수 있었던 사고의 기저는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의 숫자가 일곱이었던데 기인한다. 문정봉 구연본에는 칠성아기의 부모가 칠성단을 마련하고 칠성불공을 드리는 날이 칠월칠석이며, 날짜도 ‘칠일간’ 칠성불공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화가 원래 기본적으로 숫자 7을 중시했던 것이라 한다면, 이와 같은 문정봉 자료는 신화에 원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4) 뱀과 중의 결연담이 지니고 있는 신화적 의미

칠성본풀이에서는 여신인 뱀이 중과 결합하여 일곱 자식을 낳고 있다. 칠성신이 자식을 일곱이나 낳고 있는 것은 뱀이 가진 다산성(多産性)을 상징한다. 뱀이 가진 이와 같은 다산성은 나중에 칠성신이 부신, 혹은 풍농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칠성본풀이는 남신인 중과 동물인 뱀과의 결연담이다. 즉, 이류교혼담(異類交婚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혼인은 그 자식들이 모두 신성한 신들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성혼(神聖婚)이라 할 수 있다. 중이 뱀에게 잉태를 시키는 방법은 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어느 것이 원래의 내용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그냥 품에 안고 자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료도 있고, 중이 손으로 칠성신의 가마를 왼쪽 오른쪽으로 삼세 번 돌려내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료도 있으며, 중이 칠성아기의 흘목을 잡고 일곱 번을 죄여버려 칠성아기가 깜짝깜짝 놀랐다는 내용에 이어 중이 칠성아기를 오장삼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데, 나중에 칠성아기가 수태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 어느 내용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와 같은 세 가지 방법 중, 중이 손으로 칠성아기의 가마를 돌려 잉태를 시키는 것은 <초공본풀이>에서 주자선생이 자기맹왕아기씨에게 잉태를 시키는 방법과 같다. 칠성신의 출생담이 사신의 출생이기에 여타의 일반신본풀이에 나오는 여신들의 출생과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이 뱀신에게 잉태를 시키는 방법도 좀 다르게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중이 칠성신의 흘목을 잡고 일곱 번을 죄여버려 칠성아기가 깜짝깜짝 놀랐다는 내용이 수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한다.

신화시대에는 인간과 동물의 이류교혼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우리가 신화시대의 것이라고 알고 있는 단군신화도 역시 이류교혼이다. 비록 환웅과 곰이 직접 혼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곰이 웅녀로 변한 후 하는 혼인이기는 해도, 환웅과 호랑이, 곰 등은 상호 대화를 하면서 혼인의 의지를 소통하고 있다. 신화의 흔적물로 보고 있는 야래자(夜來者) 전설 역시 인간과 동물의 교혼이 중심내용이다. 이류교혼화소, 혹은 이류교혼담은 신화적 성격을 가진 자료의 경우 신성혼이나 신성존재의 출생담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²⁴⁾ 칠성본풀이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칠성본풀이에 등장하는 중은 현재 우리와 시대를 같이 하여 살고있는 중이 아닐 수도 있다. <초공본풀이>, 혹은 <제석본풀이>에도 주인공이 되는 여신에게 잉태를 시키는 존재는 ‘중’으로 되

24) 강진옥, 이류교혼화소 글 참조,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2), 국립민속박물관, 2012.

어 있다. 칠성본풀이의 경우, 세 번째 중은 도술과 주술로 광풍과 구름, 안개도 불러낼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 신화에 나오는 ‘중’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5) 뱀신과 야광주와의 상관성

칠성본풀이에서 칠성신이 야광주를 가졌다는 내용은 박봉춘 구송본에만 나온다. 임신한 딸을 무쇠석곽에 넣어 바다에 내버릴 때 부친이 칠성아기의 입에 이것을 물려서 보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시하면, 어머 칠성신은 입에 야광주를 물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몇 자료의 [비념] 내용을 보면,²⁵⁾ 칠성신이 야광주 혹은 생금주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 이 내용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칠성신이 야광주나 생금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칠성신의 신성함과 영험함을 상징하는 신화소로서, 이 또한 칠성신을 초월적이고도 신성하게 만들기 위한 신화적 전략이다. 칠성신이 지닌 것을 야광주로 보던 아니면 생금주로 보던, 이것은 바로 칠성본풀이 같은 신화가 이런 기능을 가진 구슬이 중시될 수 있었던 시대에 형성된 신화라는 것을 암시한다. 야광주는 밤에 빛나는 구슬로서 주위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밤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던 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비념] 내용을 보면, 야광주는 이와 같은 기능이 중시되기보다는 많은 재물을 가져다 주는 주술적인 구슬로 기능하고 있다. 생금주를 중시해서 본다면, 이것은 금이라는 광물이 제련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생금 자체로 많이 발견되던 시기와 관련이 있다. 제주도 큰곳 내의 일반본풀이 중 <삼공본풀이>에도 주인공 가문장아기가 금을 얻는 것은 생금과 관련이 있다. 칠성신이 가진 생금주 화소는 바로 이런 내용과 접맥되고 있어 흥미롭다.

6) 칠성신의 노정기 내용과 의미

칠성신은 부모로부터 추방을 당한 후 세 번에 걸친 공간적인 대이동을 한다. 이와 같은 공간상의 대이동을 그린 내용을 편의상 노정기라 한다면, 이 신화에는 앞에서 보듯이 (A), (B), (C)와 같은 세 번의 노정기가 나타난다. 다음에는 이러한 노정기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A) 노정기의 내용과 의미

이 노정기는 칠성아기가 무쇠석곽에 떨어져 바다에 버려진 후 제주도에 오는 이르기까지의 노정기이다. 진도의 김선주 이야기는 박봉춘 구송본에만 나오는데, 이는 칠성신이 가진 직능을 일차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무생 구송본에는 이 석곽이 강남 천자국을 넘어 들고, 일본 주년국도 넘어 들고, 우리나라 효자국을 돌아 들어오는데, 조선국의 팔도관장이 세어서 못들어 오고…… 하다가 제주도로 온다고 한다. 한생소, 이용옥 구송본에는 바다에 버려진 무쇠석곽이 연3년을 떠다니며 경상도, 전라도를 거쳐 제주도로 오는 것으

25) 예를 들면, 안사인 구송본, 430~431쪽에는 칠성신에 대한 비념에서 ‘뒤으로 뒷칠성님이랑 유기제물 허튼 금전 신나수와 팔모야광주를 신나습고 이간주당 천하거부 시켜줍서’라 하고 있다. / 또한 서월선(구좌면 평대리 여무, 76세) 구송본의 칠성신에 대한 비념에는 앞에 여러 가지 곡물이 병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빌고, 이어서는 칠성신이 밖으로 나다니지 않도록 기원을 한 후, ‘난디나민 생금주를 물어들고 안으로 드러사민 야강주를 물어다가 안방으로 드러상 앓갓들 좋은 대항 속에 황급으로 정제허영 야강줄 입에 물영 흥번 덕덕치민 즈손에 창성시기곡 두 번 덕덕치민 우마번성 시기곡, 시번 덕덕치민 오곡풍성 시기곡, 니번 덕덕치민 육곡시림 시겨줍서.’라 하고 있다.(진성기, 1969, 『남국의 무가』, 890쪽 참조.)

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칠성신이 육지 쪽으로부터 제주도로 들어오는 과정을 노정함으로서, 칠성신, 혹은 이 신화가 원래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육지 쪽 어디에선가 창조되어 제주도로 이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또한 강남 천자국을 넘나든다는 말을 통해 이 신의 고향을 중국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주도 큰곳의 무속언어를 보면, ‘강남은 천자지국, 일본은 주년지국, 우리 나라 천하해동 조선국’은²⁶⁾ 늘 함께 붙어 다니는 관용어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용어는 우리나라 조선국을 강조하고자 하면서 그 앞에 다른 두 나라 이름을 붙여 말하는 언어관습에서 나온 것이다. 제주도 큰곳의 언어관습을 보면, 어떤 사물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늘 셋으로 나누어 말하고, 이들 셋 중에서는 특히 마지막 셋째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²⁷⁾ 따라서 이러한 언어관습을 이해한다면, 강남 천자국은 그냥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이지 그것이 반드시 중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B)노정기의 내용과 의미

(B)노정기는 제주도에 도착한 무쇠석곽이 7명의 잠녀를 만나는 함덕포구에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제주도에 도착한 무쇠석곽은 처음에는 산짓개로 들어오려 했으나 이 지역의 본향당신이 막아서 들어올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이후 다른 개에 들렸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무쇠석곽은 산짓개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의 오른편으로 돌아 마을의 포구마다 들리지만 쫓겨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화북, 삼양, 신촌, 조천, 신흥, 함덕, 북촌, 동북, 김녕, 월정, 행원, 평대, 세화, 성산포까지만 가는 자료도 있지만, 이후에도 더 계속하여 서귀포, 강정, 모슬포, ... 애월까지 가서 제주도를 한 바퀴 다 돈 후 함덕 서모오름 알 썩은개로 들어간다.

그런데 박봉춘, 문정봉 구송본에는 이러한 노정기가 없다. 무쇠석곽이 그냥 바로 제주도 함덕에 표착하는 것이다. 고창학 구송본은 약간 등장한다. 표선리의 이무생 구송본부터 기타 제주도의 북동부 자료는 이 내용이 아주 장황하고도 길게 이어진다.²⁸⁾ 가장 길고도 자세하게 구연되는 자료는 양창보와 한생소 구연본인데, 이들 자료는 제주도를 오른편으로 돌아 완전히 한 바퀴를 다 돈 다음에 함덕으로 들어간다. 까닭에 이용옥 심방은 이 부분을 구송하면서 “제주시 훈 바퀴를 다 돌아도, 이거 다 거느령 허쟁 허민 오닐해가 다 지어도 못다 험네다. 다 돌아도 각 막을 막을마다 본향이 잊어부난 췌어지언 못들고-”라 하고 있다. 그런데 무쇠석곽이 이렇게 어떤 -개에 들어갔다가 본향당신의 힘에 밀려 못들어가고 다시 나와서 다음 포구로 들어가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서순실 구송본을 참조하면, 사실은 석곽이 썰물에 밀려나고 들물에 들어가고 하면서 나왔다들어갔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6) 현용준, 1980, 앞의 책, 43쪽 참조.

27) 예를 들면, 칠성본풀이에도 이러한 언어관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칠성아기가 띠밭에 떨어져 홀로 있다가 중을 만날 때도 첫 번째 중, 두 번째 중은 그냥 지나가지만 세 번째 중이 그녀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다.

28) 예를 들어 안사인 구송본의 내용을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석곽이 물막을 근당하니, 도성삼문 일스당 산짓개로 들져 허난 산지용궁 칠머리 세벤도원수 췌여지고 화북으로 들жат더니 가릿당이 세여지고 가물개로 들жат더니 시월도뱅수가 췌여지고 설개로 들자터니 숨부기남알개로육서 췌여지고, 신촌으로 들жат더니 큰물머리 췌여지고 조천으로 들жат더니 새콧알고망할망 췌여지고 신흥으로 들자터니 볼레날알박씨할망 췌여지고 함덕으로 들자터니 스레물거리 췌여지고 동북으로 들자터니 고침지할망 췌여지고 김녕으로 들자터니 안성세기 밧성세기 세여져 못내들고 서화리로 들자터니 천즈 백주 금상이 췌여져 못내들고 든물서난으로 들져 허여 서이와당 들어간다.

박봉춘, 문정봉 구연본에 (B)노정기가 없는 것을 보면, 이 내용은 원래 없던 것이 점차 내용이 부연되고 적층되면서 그 내용이 길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신화의 내용과 분량도 점차 길어지게 된 것이다. (B)노정기 부분이 이렇게 확대되고 내용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B)노정기 내용은 서사구조가 없어 외우기가 어렵다. 이 내용은 심방이 제주도의 순차적 지리와 해당되는 지역의 본향당신의 이름을 알아야 구연할 수 있다. 즉, 지식과 기억력이 탁월해야 이것을 틀리지 않고 구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정확하고도 길게 구연할 수 있다면, 이 심방은 단골로부터 보다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방들은 이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외우려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B)노정기는 그 내용이 점차 풍부해지고 길어졌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안사인, 한생소, 양창보 심방은 매우 기억력이 좋고, 제주도의 본향신에 대한 지식과 학식이 매우 풍부했다고 볼 수 있다.

(B)노정기는 제주도의 토박이신인 본향당신과 외래신과의 갈등을 보여준다. 외래신은 토박이신의 힘에 눌려 한동안 제주도에 표착하지 못하고 밀려다닌다. 토박이신인 본향당신이 외래신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다. 굿을 할 때, 이 내용을 구연하는 심방들과 듣고 있는 단골들은 대부분 제주도 토박이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런 신화 내용을 들으며, 자신들이 신성시하며 모시고 있는 본향당신이 외래신을 물리칠 때 자신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심방에게나 단골민들에게 보다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이들로 하여금 공동체적 유대감을 느끼게 하여 하나로 뭉치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런 내용들은 알게 모르게 점점 길어질 수 있는 것이다.

③ (C)노정기의 내용과 의미

이 내용은 칠성신들이 함덕을 떠나 도성의 산지물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담이다. 칠성신들이 함덕을 떠나는 이유는 성내가 좋다고 하여 떠나는 자료도 있지만, 함덕 본향신이 사람들이 자신보다 칠성신만을 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칠성신들을 내쫓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기도 한다. 노정기에는 칠성신들이 함덕의 금성못을 거쳐 신흥, 조천의 만세동산, 조천관, 신촌의 열녀문 거리, 진드르 돌송이, 삼양의 들은돌, 쌀쌈디거리, 동주못, 베릿내, 즈으니마루를 거쳐 도성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짓물 가에 이르는데, 함덕에서부터 도성까지의 노정기는 많은 자료에 비슷하게 나오지만, 도성 안에 와서는 그 내용이 많이 다르다.²⁹⁾

(C)노정기에서는 칠성신들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낮에는 소로로, 밤에는 대로로 움직인다 하고 있는데, 이는 구렁이와 같은 뱀의 생태를 반영한 것이다. 이들 뱀은 야행성이기에 주로 밤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또 많은 자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베릿내라고 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칠성신들은 먼길 오느라 힘이 들어 몸 목욕이나 하자고 하며, 묵은 옷을 벗고 목욕을 한 후 새옷을 갈아입고 묵은 옷은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간다. 이는 바로 뱀의 허물을 벗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용옥 구연본에는 ‘~그 법으로 뱀들이 가죽 벗어 스그랑 벗어놓아 두고 땡기는 법’이라 하고 있다. 칠성본풀이는 뱀신을 인격화하여 그런 신화이기에 이처럼 곳곳에 뱀의

29) 이들 노정기가 자세한 것은 고대중, 안사인, 한생소, 양창보, 이용옥 구송본이다. 박봉춘, 문정봉, 이무생 구연본은 이와 같은 노정기가 없이 함덕에 이어 바로 산지물가 이른다. 고창학 구연본은 함덕의 일곱 잠녀와 어부의 사건에 이어 바로 칠성신들이 각자 말을 곳을 찾아 분산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노정기가 없다.

생태가 반영되어 있다.

(C)노정기는 박봉춘 구송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고대중, 안사인, 한생소, 양창보 구송본 등에는 길고도 자세하게 나타난다. 즉 제주도의 북동부 자료에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용옥 구송본에는 조천, 화북을 비롯하여 도성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지명과 관련하여 지역의 역사가 간단하지만 부연·설명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C)노정기는 지역의 변천사와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7) 칠성신들의 좌정터: 안칠성과 밧칠성의 중요성

칠성신은 모신을 포함하여 자식까지 합치면 모두 여덟이다. 그런데 칠성본풀이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이들이 좌정하는 곳은 자료에 따라 각기 달라서³⁰⁾ 어떤 내용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제주도 민속과 관련해서 보면, 이 중 어떤 신이 안칠성과 밧칠성이 되고 있는가를 중시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칠성신 중 특히 안칠성과 밧칠성을 중시하여 집집마다 모시고 있다. 안칠성은 그 신앙이 거의 전도적이다. 안칠성은 주로 집안의 고팡에 거주한다고 믿으며, 이 신에 대한 제의는 조상제사나 명절 차례 때 고팡의 (쌀)독 위에 소규모의 제물을 차려 올렸다가 본제가 끝나면 잡식이라 하여 제물을 조금씩 떠 모아 그 독 뒤쪽 바닥에 이를 붓는다. 밧칠성은 모시는 집이 안칠성에 비해 드물지만, 뒤꼍 장독대 옆이나 굴나무 아래 등 정결한 곳에 모시고 있으며, 보통 기왓장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종이에 오곡의 씨를 싸서 놓고 기와를 덮은 후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주쟁이(주저리)를 덮어씌워 모시는데 이를 칠성놀이라 한다. 그리고 매년 정월에 택일을 하여 철갈이라는 신년제를 할 때면 칠성놀이를 같이 덮기도 한다. 안칠성이나 밧칠성은 사신인 뱀을 모시는 신앙이긴 하지만, 앞에서 보듯이 실제로 살아있는 뱀을 모시는 것은 아니다. 뱀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신체로 형상화되고 관념화되어 그곳에 뱀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형성시킨 바탕은 바로 칠성본풀이 및 이와 관련된 칠성신앙이라고 한다.³¹⁾

칠성본풀이에서 어머니 칠성신이 집안의 고팡을 차지하는 안칠성이 된다는 것은 극히 일부 자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료에 공통하고 있다. 그러기에 어머니가 고팡을 차지하는 안칠성이 된다고 하면 이 자료의 내용이 맞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일곱 자식 중 누가 밧칠성이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제주도 큰굿 내의 일반신본풀이 내용을 참고하면, 신화에서는 형제 중 항상 막내가 중시되는 특징이 있다. 즉, 이들 신화는 말자(末子)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만들어진 신화들인 것이다.³²⁾ 예를 들면 <삼공본풀이>에서는 막내딸인 감은장아가기, 그리고 <문전본풀이>에서는 막내인 일곱째 아들 녹디생인이 중시되는 것과 같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칠성본풀이도 막내인 칠성신이 집의 뒷뜰을 지키는 밧칠성이 된다는 내용이 원래의 내용일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안사인 구송본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안사인 자료는 또 남다른 특징이 있는데, 다른 자료들에는 일곱 자식이 모두 딸로만 나오는데, 여기에는 일곱 자식이 남녀, 혹은 암수가 섞여 있는 것이다.

30) 현용준, 2002, 위의 책 441쪽에 문정봉, 박봉춘, 이무생, 고창학, 고대중, 안사인 구연본 등 6개의 자료에 나타난 이들 신들의 좌정처를 비교 정리한 내용이 있다.

31) 이상의 안칠성과 밧칠성에 대한 내용은 현용준, 2002, 위의 책, 448-449쪽 참조.

32) 이수자, 2001, 6. 「제주도 큰굿 내의 신화에 나타난 가족구성상의 특징과 문화사적 의의」, 『구비문학연구』12, 한국구비문학학회.

즉,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딸아기로 언급되어 있고,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아기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넷째까지는 여성신(女, ♀)이라는 뜻이고,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남성신(男, ♂)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일곱째 칠성신이 좌정하는 집 뒤의 역대부군칠성, 즉 밧칠성은 남성신(男性神, ♂)이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자식인 일곱 칠성을 모두 딸아기, 즉 여성신으로만 보아온 경향이 있다.³³⁾

Ⅲ. 칠성신의 신적 성격과 직능

앞에서는 칠성본풀이의 내용과 신화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이러한 신화 및 여러 자료를 통해 칠성신의 신적 성격과 직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젯뜨리얏혀살려움’에 나타난 칠성신의 성격과 직능

‘젯뜨리얏혀살려움’이란 제청에 맞이한 신들을 자리에 앉힌다는 뜻이다. 큰굿의 맨 처음 의식인 {초감제}에서는 제청(祭廳)에 불러 모신 수많은 신들을 위계질서에 따라 차례대로 자리에 앉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젯뜨리얏혀살려움이다. 이 자료는 큰굿에서 모셔지는 신들의 이름, 직능, 종류, 그리고 위계질서 등을 잘 알 수 있게 하기에, 제주도 큰굿을 이해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 먼저 눈여겨 보아야 한다.

『사전』에 의거하여³⁴⁾ ‘젯뜨리얏혀살려움’에 나타난 칠성신의 종류와 직능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신전 하옵거든 집안 안 들어사민 연양상고팡 좌정흐든 강남목골 미양산 고장남 밧 질친남발서 솟아나던, 아방국 장나라 장설룡 어멍국 송나라 송설룡 일곱아기단마실 총 거느리며 어멍국 제왕칠성 대독 소독 검은독 노린독 대두지 소두지 동창괘 서창괘 남창괘 북창괘 촛지하여 관광생이청 섬지기 말지기 뉘지기 흡지기 거느리어, 열두시만국 죽손에 먹을 오곡 풍년 시겨주저 지국성 하전흡서. 뒤으로 뒷할마님 역대부군 칠성도 살려옵서.³⁵⁾

이상의 내용을 보면, 어머니인 뱀신은 제왕칠성이라 불리며 집안의 연양상고팡에 좌정하고 있고, 여러 독과 두지, 창고를 차지하고 있는 신으로 섬지기, 말지기, 뉘지기, 흡지기 등 곡물의 수량을 재는 도구를 거느리면서 열두시만국 자손에 먹을 오곡풍년을 시켜주려고 지상으로

33) 앞서의 각주 30) 자료에도 모두 여성신으로 보아 1女~7女로 적혀 있다. 안사인 구연본에서는 첫째 딸은 추수못을 차지하는 추수할망, 셋째 딸은 이방 형방차지신, 넷째 딸은 옥초지, 넷째 딸은 과일할망, 다섯째 아기는 동창고 서창고를 차지하는 창고지기, 여섯째 아기는 광청못을 차지하는 광청할망, 일곱째 아기는 집뒤의 감굴나무 밑에서 흑주쟁이 청지에(청기와) 아래에 거주하는 역대부군칠성으로 들어서 집안을 천하거부로 만들어주는 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상고팡에서 많은 독과 두지를 차지하는 안칠성으로 들어서 열두시만국을 거두어주는 신이 된다.

34) 현용준, 1980, 70쪽 참조.

35) 이것은 어머니인 제왕칠성을 중심으로, 그녀가 집안의 연양상고팡(광)에 좌정한다는 것과 강남목골 미양산 고장남 밧 질친남발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는 장나라 장설룡이고 어머니는 송나라 송설룡이며 일곱아기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녀는 독들과 두지, 괘 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뉘지기 등을 거느리고 열두시만국의 자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오곡을 풍년시켜 주시도록 하강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는 뒤(후원)에 있는 칠성신도 오시기를 기원하는데, 그는 역대부군신이다.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집뒀을 지키는 뒷할마님이 별도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신은 역대부군 칠성이라 불리고 있으며, 이 신도 제청에 오시라 하고 있다. 칠성신 중에서는 특히 어머니인 칠성과 집뒀 후원을 지키고 있는 칠성신이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집뒀 후원을 지키고 있는 역대부군 칠성은 바로 집안을 역대부자로 만들어주는 부신(富神)이다.

어머니인 뱀신이 오곡풍농을 시켜주려고 … 운운 하는 내용은 이 신의 성격이나 직능이 농사의 풍농을 시켜주는 신, 곧 풍농신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신화인 칠성본풀이에는 나오지 않지만, 칠성신의 성격이나 직능을 이해하고자 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

2. 비념을 통해서 본 칠성신의 성격과 직능

[비념]이란 제향을 받는 대상신에게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단하게 비는 의식이다. 이때 원하는 내용은 반드시 그 신이 가진 직능과 상관이 있는 것을 빌게 되므로, 비념에는 대체로 대상신이 가진 직능이나 기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사전』에 나오는 비념의 일부분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칠성님 난산국을 신평엿사웁기 안칠성님에서 보리농사 7을추곡 시만국을 만발시경 이 간주당 대독 소독 검은 독 대두지 소두지 섬으로 말로 뉘로 홉으로 열두시만국을 신나 습고 칠성님 마불림 나시지말앙 평사농 매사농 중이사농 상맛을 중맛을 하맛을 워도리 네도리 상가지 중가지 울성장안 울담 네담 나아상 눈에 펜식하게 말곡 뒤으로 뒷칠성님이랑 유기제물 허튼 금전 신나수와 팔모양광주를 신나습고 이간주당 천하거부 시켜줍서.³⁶⁾

이상의 내용을 보면, 안칠성님에게는 보리농사와 가을추곡이 풍농지게 하여 독과 두지가 가득 차게 해주십사고 빌고, 뒤의 뒷칠성님에게는 집안을 천하거부로 만들어 달라고 기원하고 있다. 이로써 모신인 안칠성은 신적 성격과 직능이 풍농신임을 알 수 있고, 뒤의 뒷칠성은 집안을 거부로 만들어주는 부신적 기능을 갖고 있는 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념 내용에는 안칠성이 밖으로 나돌아 사람들 눈에 띄이지 않기를 간곡하게 기원하고 있다. 사람들 눈에 띄이면 잘못하면 탈이 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본 칠성신의 신적 성격과 직능

칠성본풀이 내용만 보면 칠성신의 성격이나 직능은 무시하거나 홀대, 혹은 학대를 하면 신병을 앓게 하고, 잘 받들어 모시면 부자로 만들어 주는 신으로 나온다. 그러나 ‘젯드리아혀살려움’이나 [비념] 내용을 보면 칠성신은 원래 이런 성격만 가진 신은 아니다. 어머니인 제왕칠성신은 농작물의 풍년을 가져다주는 풍농신적 성격을 갖고 있다. 풍농이 되면, 사람들은 추수한 곡물을 여러 가지 독에 담아 집안의 고팡에 놓아둔다. 그러기에 어머니 칠성신은 고팡에서 여러 가지 독을 지키는 안칠성이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막내 자식인 칠성신은 원래부터 집 뒷뜰을 지키면서 집안을 거부로 만들어 주는 부신적인 성격을 가진 신으로 등장한다.

36) 이것은 칠성님의 근본을 풀었다 하고(앞에서 신화를 구송하였다는 뜻), 안칠성님은 농사를 풍농지게 하여 독과 두지가 가득 차게 해주십사고 기원하면서, 마불림, 평사냥 등 밖으로 나다녀 남의 눈에 띄지 않기를 빌고, 또 뒤의 뒷칠성님에게는 이 집안을 천하거부로 만들어 달라고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신은 역대부군 칠성신이라 불리게 되었다. 칠성본풀이 신화 내용과 결부지어 보면, 집뒤 후원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칠성단을 마련해 놓고 칠성불공을 드리는 곳이 바로 집뒤 후원이고, 이런 불공을 드린 덕에 칠성신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기에 집 뒤의 후원은 바로 칠성신들의 원고향(原故鄉)인 셈이다. 게다가 이곳은 하늘에 있는 칠성신(七星神)들과 상호소통도 할 수 있어 필요하다면 이러한 신들에게 명과 복, 그리고 부를 기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화에서는 집 뒤뜰을 신성시하여, 이곳을 지키는 신으로 하여금 집안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으로 상정한 것이다. 신화가 창조될 당시에는 말자(末子)가 중시되던 사회이기에, 이곳은 여러 자식 중에서도 특히 일곱째인 막내가 이곳을 맡는 것으로 했을 것이다. 집과 같은 주거공간에 있어, 어머니 칠성신은 고향을 차지하는 신이 되고, 역대부군 칠성은 뒤뜰에 거주하는 곳으로 상정한 것은 특히 이러한 신화를 창조한 집단은 집에 있어 고향과 뒤뜰을 신성시하고 중시했다는 뜻이다. 고향은 식량이 되는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기에, 그리고 집의 뒤뜰은 한 집에 있어 가장 은밀하고도 내밀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칠성신 중 가장 중시되는 신은 어머니인 안칠성과 막내인 칠성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신적 직능은 원래 어머니는 풍농신, 막내인 칠성신은 집안을 거부로 만들어 주는 부신적 성격을 가진 신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이와 같은 풍농신적 성격은 사라지고, 전부 부신적인 성격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나 미래사회에 있어, 뱀과 같은 것이 풍농신이나 부신이 될 수 없다는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신앙도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풍농신, 혹은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이기에 사람들은 칠성신이 가능한 집안에서 오래도록 잘 살기를 바랐다. 그러기에 이를 미워하거나 멸시하면, 혹은 죽이게 되면 갖가지 신병을 앓는다 하고, <칠성새남>, <전새남굿>(안사인 구연본) 혹은 <칠성궤사>(한생소 구연본) 같은 의례를 해야 낫는다고 했다. 그래서 칠성신은 신병, 혹은 질병을 일으키는 신으로 관념되기도 했다. 칠성신은 인간에게 풍농을 주기도 하고 부자로 만들어 주기도 하는 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처럼 신병이나 질병을 주기도 하는 양가적인 직능을 가진 신이 된 것이다.

IV. 칠성본풀이가 구연되고 있는 제의의 성격

신화와 제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한다면, 칠성본풀이가 어떤 제의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연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일도 필요할 것 같다. 따라서 다음에는 칠성본풀이가 구연되고 있는 제의를 가능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칠성본풀이가 구연되고 칠성신이 제향을 받는 제의를 편의상 {칠성제}라 한다면, 이 제의는 큰굿의 초기에는 원래 농경기원신에 대한 제의인 {세경제} 다음에 행해지던 제의였을 가능성이 있다.³⁷⁾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세월이 워낙 오래 지나다 보니, 큰굿의 모습도 많이 변하여 현재는 이 신화가 각도비념, 칠성새남, 철갈이 같은 제의에서 구송되고 있다.³⁸⁾ 칠성본풀이는 심방이 제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장구를 치며 구송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역에 따라 특정한 제차에서는 서서 구송하는 사례

37) 이수자, 1989, 앞의 논문 참조.

38) 칠성본풀이는 간혹 아기탄생을 기원하는 불도맞이 같은 곳에서도 불린다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하늘의 칠성신이 인간의 생명과 수복을 관장한다는 믿음이 있는데, 칠성본풀이 앞부분에 이와 같은 하늘의 칠성신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칠성본풀이가 불도맞이에서 불리는 것은 이 신화의 본질적 기능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아, 여기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기로 한다.

도 있다고 한다.³⁹⁾

1. 큰곳의 각도비념과 칠성본풀이

칠성본풀이는 현재 제주도의 큰곳 중 {각도비념}과 같은 제의에서 구송되고 있다. 『사전』을 보면 이 제의는 큰곳 31제차 중 25번째 제차로 진행되고 있어서,⁴⁰⁾ 비교적 후반부에서 행해진다고 할 수 있다. 각도비념에서 ‘도’는 신을 뜻하고, 비념이란 말은 ‘빈다, 빌다’의 뜻이다. 각도비념은 신들의 제청에의 강림을 기원한 후, 신들이 하강할 시간과 장소를 아뢰고, 왜 곳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후, 칠성본풀이를 구송한다. 이후에는 비념을 한 후 주신(主神)들을 대접하고, 이어서는 하위잡신들을 대접하고자 술잔을 넘기고, 무구를 던져 신의 뜻을 점친 후 단골들에게 이러한 신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이어서는 조왕신(부역신), 오방토신, 주목정살지신, 놀굽지신 등에 대한 비념을 한다. 이렇게 하여 각도비념이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26번째 제차인 {영계 돌려세움}이 행해진다.

각도비념은 집안의 여러 공간을 수호·관장하는 신들에게 제의를 하면서 집안이 평안하고 잘 되기를 기원하는 제의다. 칠성본풀이는 마지막 내용에 집안(혹은 성안)의 고팡, 과원, 추수 못, 이방 형방, 옥 … 뒤뜰과 같은 여러 공간을 지키는 신들이 등장하며 그곳의 부를 지켜주기에 이러한 공간성이 중시되어 각도비념에서 구송되는 것이다.

2. 칠성새남과 칠성본풀이

칠성새남은 현재 큰곳을 할 때 하는 것은 아니고, 작은곳 형식으로 단독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사신(蛇神)인 칠성신에게 걸린 병을 치료하는 곳으로, 소미 등이 역할을 나누어서 극적(劇的)으로 진행한다. 내용은 어떤 사람이 칠성신 때문에 병이 걸렸는데, 이것은 누가 뱀을 죽여 버린 것을 처음 보고 그 죄를 뒤집어써서 걸린 것이라 하고, 이 병을 치료하는 데는 그 죽인 자를 찾아 처형하여 환자가 무죄임을 밝히는 동시에 죽은 뱀을 살려 놓는 것이다. 곳에서는 뱀을 죽인 자가 악신인 허맹이라 단정하고, 그를 호출해다가 그 뱀을 죽였다는 자백을 받은 후 허맹이를 가다귀섬으로 귀양보내고, 죽은 뱀을 환생시켜내는 극적인 행위를 한다.⁴¹⁾

칠성새남은 일반곳을 할 때와 같이 초감제, 초상계, 일월맞이, 초공본풀이, 초공맞이, 초곱매김, 산받아분부사름, 푸다시함, 메어들어 석살림, 이공맞이, 시왕맞이, 삼대김, 시왕질쳐서 메어뜰, 본향드리, 칠성본풀이 구송, 각도비념, 도진 등의 순서로 진행되기⁴²⁾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 중 극적인 내용은 초곱매김, 삼대김 등에서 이루어지고, 칠성본풀이는 칠성새남곳이 거의 끝나갈 무렵 구송된다. 이 신화를 구송한 후 여기에 나오는 칠성신들에게 어디에 좌정하고 싶은지를 묻고 있는 것을 보면, 칠성본풀이 구송은 칠성신들의 새남[다시 살아남]을 상징하는 제의적 기능을 갖고 있는 듯하다.

칠성새남은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뱀의 재생과 영생불사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원래는 큰곳 속에서 {칠성제}의 놀이곳으로 같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흔적은 없고, 따로 독립되어 작은곳으로만 행해지고 있다.

39) 강정식글, 칠성본풀이, 『한국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9, 880~882쪽 내용을 참조하면, 칠성본풀이는 대개 심방이 제상 앞에 앉아 장구를 치며 구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역에 따라 특정한 제차에서는 서서 구연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40) 반면에 강정식, 2015, 『제주곳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에서는 각도비념을 23번째 제차로 소개하고 있다.

41) 이상의 내용은 현용준, 1980, 앞의 책, 900쪽의 칠성새남 설명 참조.

42) 현용준, 1980, 위의 책, 490~499쪽 참조.

3. 철갈이[벨롱갱이]와 칠성본풀이

철갈이는 집안의 행운을 비는 곳으로, 벨롱갱이라고도 한다.⁴³⁾ 역시 큰곳 속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 작은곳 형식으로 단독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철갈이라는 이름은 춘하추동 4시절 어느 때나 그 절기가 바뀔 때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지만, 보통은 새해를 맞이하여 정월에 택일을 하여 행한다.

곳의 내용은 집안의 신인 조왕, 문전, 오방토신, 칠성, 주목 정살지신, 놀굽지신(날가리신) 등에게 일 년의 행운을 기원하는 비념을 하는 것이다. 칠성본풀이는 이 중에서 칠성 비념을 할 때 구송된다. 비념 때는 “섬지기 말지기 뉘지기 흠지기 관광생이청 거느령 삼진초정월 나민 신과세 문안 해 넘는 철갈이로 상을 바칩네다. 칠성님에서 동서으로 오는 곳인 액년 막아줍고 놈의 나라에서 들어 오는 곳인 신병덜 하게 말양 칠성님 좌정흐난 달로 좌정허영 조손에 제수 신스망을 나수와 줍서.” 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칠성신은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만이 아니라, 집안의 곳을 막아주고 건강을 지켜주며 재수를 가져다주는 신으로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철갈이가 일 년 동안의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곳이기에 건강, 장수, 복을 다 담아 칠성신에게 이렇게 기원하는 것이다.

V. 뱀을 풍농신, 혹은 부신으로 관념했던 인식의 기저

우리나라에서 뱀은 4신 가운데 하나의 지위를 차지하고, 12지의 하나가 되면서 한국인의 문화적 창조를 풍부하게 하는 아이콘으로 활용되어 왔다.⁴⁴⁾ 그러나 우리민족의 역사나 일상생활을 보면, 사람들은 보통 뱀이 독을 가진 존재이기에 두려워하며 멀리해 왔다. 우리 역사 속에서 뱀은 이처럼 양면성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뱀은 전 세계의 신화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⁴⁵⁾ 이것은 전 세계의 많은 민족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뱀을 매우 독특한 동물로 인식하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뜻한다. 제주도의 경우, 뱀을 풍농신 혹은 부신으로 관념하고 칠성본풀이 같은 신화를 구송하면서 제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런 신화를 창조하고 구송해왔던 집단 역시 뱀을 아주 독특한 동물로 인식하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화를 창조한 집단은 어떻게 하여 뱀을 이처럼 신성시하며 풍농신, 혹은 부신으로까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일까?

뱀은 생태상, 그리고 성격상 신성성을 가질 여러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알로의 탄생, 다산성(多産性), 수차에 걸친 허물벗기, 물과의 상관성, 남성적 성 상징, 동면(冬眠) 등등. 달동물(Lunaanimal)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뱀은 그래서 많은 종교나 신화체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뱀이 가지는 다양한 심볼리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풍요와 재생, 그리고 불사의 힘이라 할 수 있다.⁴⁶⁾ 뱀을 신성시하면서 풍농신·부신으로 관념하고 있는 칠성본풀이 창조집단의 사고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들은 뱀의 다산성과 물

43) 이하 철갈이에 대한 내용은 전문을 현용준(1980), 위의 책, 898쪽에 의거했음.

44) 김동진, 2013, 「15~16세기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뱀의 양면성」, 『역사민속학』 41, 한국역사민속학회, 103쪽.

45) 벨시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역, 형설출판사, 1982, 184~194쪽 참조.

46) 벨시아 엘리아데, 위의 책, 189쪽 참조.

과의 상관성을 보면서 풍요와 부를 감지했다. 칠성아기가 자식을 일곱 마리나 낳고 있는 것은 뱀이 가진 다산성을 인정한 것이며, 그러기에 이들은 풍농신과 부신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

수차에 걸친 허물벗기를 보면서는 뱀의 재생과 영생을 인지했다. 그리하여 뱀들의 재생의식(再生儀式)이라 할 수 있는 <칠성새남>을 만들어 의례를 행하면서 칠성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제주도 큰굿에는 이 외에도 뱀의 영생불사(永生不死)를 믿었던 또 다른 자료가 있다. {시왕맞이}에서 구연되는 <강님차사본풀이>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다. 강님차사본풀이는 강님이라는 남신이 어떻게 하여 우리들 인간이 죽으면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차사가 되었는지 그 내력을 설명해주고 있는 신화다. 그런데 이 신화의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까마귀는 강님차사를 대신하여 '저승적패지'를 잣날개에 부치고 이승으로 내려온다. 그런데 오는 도중 지상에서 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자 말피가 먹고 싶어 까옥까옥 하고 울었다. 이때 말을 잡던 피쟁이가 이 소리를 듣고 말발굽을 집어 까마귀를 향해 던지니 까마귀는 맞을까 두려워 날개짓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날개에 부쳐두었던 저승적패지가 땅으로 떨어졌다. 순간 마침 담구멍에 숨어 있던 백구령이가 그것을 받아먹었다.⁴⁷⁾ 이런 일에 이어서, 심방은 '그 때 내은 법으로 칠성 죽는 법은 없어 아홉 번 죽어 열 번 도환생을 흡네다'라 하고 있다. 이처럼 뱀은 죽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뱀이 성장하면서 여러 번 허물을 벗는 것에서 유추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겨울이면 사라졌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 돌아오는 뱀의 삶의 양태에서 유추된 것일 수도 있다. 칠성본풀이를 구송하고 칠성새남을 했던, 그리고 강님차사본풀이 같은 신화를 구송했던 제주도 큰굿집단은 확실히 뱀의 재생 및 영생불사를 믿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강님차사본풀이 자료를 보면, 뱀을 칠성이라 부르면서 이 신은 '백구령이'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님차사본풀이 같은 신화가 창조될 당시 칠성신은 원래 백색의 구령이를 의미했던 것일까? 백사(白蛇)는 그 희귀성 때문에 길조로 여겨져 여러 문화에서 숭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⁴⁸⁾ 우리 신화에 백사를 신성시했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을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니다.

뱀은 이상과 같이 신성시되어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현실적으로 뱀은 무섭고도 위험하여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주도 큰굿 자료에는 뱀이 부정적인 존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왕맞이} 중 [방광침]에는 저승의 여러 지옥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 중 여섯 번째에는 흑사(黑蛇)지옥이 있다. 이승에 살 때 역적모도, 살인강도, 도적 등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이 지옥에 가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뱀들이 망자(亡者)의 몸을 감아 죄를 주고 있다.⁴⁹⁾ 그리고 이승에 살 때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저승에서 심판을 받을 때 청구령이나 흑구령이로 환생시킨다고도 한다.⁵⁰⁾

칠성신이 구령이로 되어 있고, 저승에 있는 뱀들도 구령이로 나오는 것을 보면, 제주도에서 큰굿과 같은 무속의례를 행했던 집단이 중시했던 뱀은 바로 구령이라는 뱀이다.⁵¹⁾ 그런데 똑같은 구령이라 해도 어떤 경우에는 칠성신으로, 어떤 경우는 악한 일을 하여 환생되는 구령이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구령이의 색깔이다. 저승

47) 현용준, 1980, 앞의 책, 272쪽 참조.

48) 인터넷 위키백과(WIKIPEDIA) 백사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면, 백사는 변재천의 보관에 장식되기도 하며, 물의 신으로 여겨진다. 중국 항저우에 백사에 관한 전설인 <백사전>이 유명하고,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의 백사는 일본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 각지의 신사에서 숭배하기도 한다.

49) 현용준, 1980, 위의 책, 220쪽 참조.

50) 현용준, 1980, 위의 책, 223쪽 참조.

51) 구령이는 뱀과에 속하는 파충류의 하나로 구북구계(舊北歐系)에 속하며 만주, 중국 북부, 시베리아 등에 분포한다고 하는데, 보통 뱀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적패지를 먹어 영생불사하는 칠성신은 백구령이로 나타나고, 저승에서 형벌과 관련되어 있는 뱀은 흑구령이나 청구령이로 나타난다. 백은 긍정의 축이고, 흑이나 청은 부정의 축인 것이다.⁵²⁾ 우리 민족은 백의민족이라 불린 것처럼 백색을 신성시해 온 민족이다. 백색의 뱀을 긍정의 축으로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사고는 백색을 신성시해온 우리 민족의 사고와 맞닿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에 채록된 자료들을 보면, 칠성신은 백색의 뱀이 아니라 청구령이, 흑구령이도 모두 포함되고 있다.

뱀을 풍농신, 부신, 또는 불사의 존재로 관념했던 칠성본풀이 창조집단의 인식은 뱀을 풍요 및 불사의 측면과 관련해서 인식했다는 점에서 세계 보편적인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신화적·원초적 사고와 접맥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하늘의 칠성신과 상동성을 갖고있는 것으로 상징하는 한편, 흰색을 더 하고, 특별한 구슬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이런 신화를 창조한 집단만이 표현해 낼 수 있는 특별한 창조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늘에 있는 별과의 상관성, 그중에서도 특히 일곱 개별인 북두칠성과의 연관성, 색깔을 통한 성/속의 구별, 야광주, 혹은 생금주 같은 구슬을 지니게 하는 것 등은 뱀을 신성하고도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신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VI. 칠성본풀이의 문화사적 위상과 의의

다음에는 앞서 고찰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칠성본풀이의 문화사적 위상과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칠성본풀이는 제주도에서 큰굿을 할 때면 반드시 구연되는 신화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칠성신은 큰굿의 맨 처음 의식인 초감제 중 ‘젯드리얏혀살려움’에서도 아주 중요한 신격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칠성본풀이, 혹은 칠성신과 관련된 의례는 큰굿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칠성본풀이의 위상이나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주도의 큰굿과 함께 병행해야 한다.

칠성본풀이는 큰굿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기에, 그 시원 역시 큰굿의 형성 시기와 맞물려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큰굿은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육지 쪽에서 건너온 것으로, 우리 민족의 고대적 제의였던 큰굿이 제주도가 섬이기에 여기에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 큰굿은 매우 고행의 문화라 할 수 있는데,⁵³⁾ 그러기에 칠성본풀이 역시 매우 고행의 신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고대에는 육지쪽에서도 큰굿과 같은 곳에서 칠성본풀이 같은 신화가 구송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칠성본풀이의 문화사적 위상과 의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칠성본풀이의 문화사적 위상

1) 칠성본풀이는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큰굿과 같은 우리 민족의 고대적 제의의 형성 및 시작과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

52) 『東國與地勝覽』권지38 기록에는 차귀당에서는 회색뱀(灰色蛇)만 나타나면 차귀신이라 하여 죽이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신성시되는 뱀은 회색으로 나타나고 있다.(‘尙陰祀……若見灰色蛇卽以爲遮歸之神禁不殺’)

53) 이수자, 1989, 앞의 논문 및 이수자, 2004, 앞의 책 참조.

기 때문이며, 또한 뱀 같은 것을 풍농신 혹은 부신으로 관념할 수 있었을 때 형성된 신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본래의 내용은 출생담에 칠성기자형 내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있어야만 뱀신을 왜 칠성신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근원적으로 해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사찰기자형 출생담이 들어있는 칠성본풀이는 그 내용에 변이가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일반신본풀이의 여성신들이 출생하는 모습을 본 따 그 내용이 변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이는 근래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북동부 자료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용준은 칠성본풀이의 출생담에 하늘의 칠성신이 관여한다고 하여, 이 신화를 북두칠성신앙이 들어온 이후의 것으로 보고 이 내용은 원래의 내용이 아니며 후대의 것이라 했다. 그리고 본래의 사신 출생 화소는 더 고대적 모티프로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⁵⁴⁾ 칠성기자 출생담은 뱀신이 왜 칠성신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근원적으로 밝혀주고 있기에, 칠성본풀이 같은 신화에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풀이에 하늘에 있는 칠성신과 관련된 신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 민족도 이미 신화시대 이전부터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김선자는 북극성과 북두칠성은 밤하늘에 항상 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방향을 알려주는 빛나는 표지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서, 그러기에 이 두 별은 유라시아 대륙의 많은 신화에 등장하고 있다 하고, 우리나라 주변의 만주쪽에 나타나는 북두칠성 설화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칠성신앙을 중국의 도교신앙이나 불교와 관련지어 설명하지만 사실 만주나 한반도의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은 그보다 훨씬 이전,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형성되던 시절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⁵⁵⁾ 그러기에 이러한 북두칠성 신앙 때문에 이 신화를 후대에 형성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원래 있던 내용으로서 고대적 흔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칠성본풀이는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있는 신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 나오는 일부 내용 때문에 이렇게 보는 데 문제가 있다. 현용준은 안사인 구송본과 한생소 구송본의 경우, 이 신화의 후반부에 송대정집과 그 부인이 칠성신을 모셔 부자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중시하여, 송대정은 조선후기인 1850년부터 1922년까지 실제로 칠성골에 살았던 실존인물로서 대부호였던 송두옥으로 보고, 이러한 실화가 칠성본풀이에 칠성신의 효험을 증거대는 삽화로 끼어들었다 하며, 이렇게 보면 칠성본풀이의 현재 형태는 그리 오랜 일이 아니라 아주 근래의 일이라 했다. 그리고 그 근원은 현 제주시 도성 안에서 발원한 것이라 했다.⁵⁶⁾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현재의 칠성본풀이 자료나 그 내용을 모두 근래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부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으며, 이런 내용은 신화의 후반부에 잠깐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본풀이는 곳에서 심방들의 구송이나 구연을 통해 전승된다. 이들은 가능한 선생, 혹은 스승으로부터 배운 대로 신화 내용을 구송하려고 노력하지만, 구송하는 과정에서

54) 현용준, 2002,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440쪽 참조. 현용준 교수는 칠성본풀이의 출생담을 칠성기도출생(칠성기자형)과 기불출생(사찰기자형) 두 가지로 나누고, 칠성기도출생은 북두칠성신앙이 들어온 이후의 것이고, 기불출생은 불교가 수입된 이후의 것이라 이 두 가지 화소는 그리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김호성도 앞의 논문에서 칠성신은 이름만 차용되었을 뿐 실제 신격인 뱀신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뱀신앙이 중세종교인 도교와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55) 김선자, 2018, 「일곱 개의 별과 일곱 마리 뱀, 그 사이」, 『제주 신화, 신화의 섬을 넘어서다』, 북길드, 73~75쪽 참조.

56) 현용준, 2005, 앞의 책, 148~151쪽 참조.

암기력이나 창작 능력에 따라, 또는 구송하는 환경에 따라 내용에 다소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11편의 칠성본풀이 자료가 각각 그 내용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는 신화의 앞부분보다 뒷부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다. 게다가 칠성본풀이는 뒷부분에 칠성신들의 노정기가 있어 이 부분에서 큰 변화가 생긴 것이지 앞의 내용은 거의 고정적이다. 결국 이렇게 보면, 칠성본풀이는 각각의 심방에 따라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든 자료를 통틀어 일괄하여 근래에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 때문에 칠성본풀이는 자료마다 ‘부분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판소리에서 ‘부분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칠성본풀이도 그 내용을 부분부분 나누어서, 혹은 심방들 각자의 창조력을 인정하여 각 편을 독립적인 내용으로 인정하여 이해를 해야 한다.

2. 칠성본풀이의 문화사적 의의

1) 제주도 사신숭배신앙의 기원이며 근원이 된 칠성본풀이

제주도에는 뱀을 신으로 믿으며 숭배하는 사신숭배신앙이 아주 강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런 신앙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신앙형태는 많은 문헌에도 나타나고 있어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게 한다.⁵⁷⁾ 현용준은 제주도 뱀신의 유형을 셋으로 나누어 칠성신과 같이 전도적(全島的)인 차원에서 신앙시되고 있는 신, 마을수호신인 분향당신, 그리고 일가나 일족의 조상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신 등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중 전도적인 차원에서 모셔지고 있는 칠성신은 특히 고향의 안칠성과 집의 뒤뜰에 있는 밧칠성이 중시되고 있다고 했다.⁵⁸⁾ 그런데 이들 사신숭배신앙 및 사신의례의 형태는 거의 무속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신들은 모두 부신(富神)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신앙의 주체는 거의 여성들이라 한다.⁵⁹⁾

그렇다면 제주도에는 왜 이처럼 사신숭배신앙이 강하게 된 것일까? 이기욱 교수는 제주도 사신숭배신앙의 근원을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논한 바 있는데,⁶⁰⁾ 결과는 사신숭배 관행이란 쥐의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뱀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였다고 하였다. 제주도 사신숭배신앙의 기원은 이와 같이 생태학적 측면에서 해명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해석에 앞서 제주도의 사신숭배신앙은 근원적으로는 제주도의 큰굿에 칠성본풀이, 혹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칠성신앙 같은 것이 있었기에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칠성본풀이 혹은 칠성신앙은 제주도에 있어 사신숭배신앙을 형성시킨 모태이며, 동인이 된 것이다. 큰굿은 제주도에 들어와 전도적인 차원에서 행해졌다.⁶¹⁾ 큰굿이 전도적인 차원에서 행해

57) 이와 같은 문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제주풍토록』(김정, 1520~21년간의 제주기록)/ 『남사록』(김상헌, 1601년의 제주기록)/이건의 『제주풍토기』(1628~1635년간의 제주기록) 등이 있다. 특히 제주풍토기에는 “섬 중에 두려운 것 중에도 구렁이가 제일 무섭다. … (중략)… 섬사람들은 큰 구렁이와 배암을 구별함이 없이 보기만 하면 이를 부군신령(府君神靈)이라 하여 쌀과 정수를 뿌리며 그에게 빌뿐이지 이를 해치는 자가 없다.”라는 기록이 있어 당시 제주도의 사신숭배신앙의 한 양상을 알게 한다.

58) 현용준, 2002, 위의 책 참조. 분향당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경우는 토산리 여드렛당신, 고산리 당목잇당신, 외도동의 두리빌렛당신, 월정리 분향당신 등을 들 수 있고, 이 외에 도내의 여드렛당의 일부도 사신을 받드는 당으로 알려져 있다. 조상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경우는 조천을 안씨 집안의 나주 기민창조상, 옹포리 진도할망조상, 선흘리 안씨댁 조상 등이 있다고 한다.

59) 이기욱, 앞의 글, 194쪽 내용 인용.

60) 이기욱, 위의 논문 참조.

61) 특히 이것은 관 주도하에 이렇게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칠성본풀이의 후반부에 자식인 일곱 칠성신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동헌, 관청, 이방·형방, 옥지지, 과원 …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유

졌다. 이는 곧 칠성본풀이도 전도적인 차원에서 구송되었다는 뜻이다. 큰굿과 함께 칠성본풀이가 구송되고, 칠성신에 대한 의례가 거듭 될수록 단골신앙민들은 신화와 의례에 기반하여 뱀을 확고하게 칠성신으로 관념하게 되었고, 뱀을 신성시하면서 신화 내용에 기반하여 안찰성, 밭칠성을 집안에 모시면서 농사의 풍농과 집안이 거부가 되기를 소망하였다. 신화와 의례를 통해 뱀의 신성성이 강화됨에 따라 뱀은 이제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영물로 강조되기에 이른 것이다.⁶²⁾ 생각해 보라! 힘겨운 농사에 풍농을 가져다주고 집안을 거부로 만들어준다는데, 이러한 신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현재도 사람들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덤벼들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복부인들이 들끓고 있다. 하물며 제주도 사람들은 전근대 이전에는 정말 힘들고도 어렵게 살아왔다. 바람 많고, 돌 많고, 농토는 적은 곳에서 극한의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풍농을 가져다주고,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누군들 이와 같은 칠성신을 안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사신숭배신앙은 이렇게 시작되어 집단화되고 고착되면서 세대를 이어 지속되었다. 게다가 뱀은 또 쥐를 잡아먹음으로써 농작물이나 곡물을 쥐의 피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실리적인 이점도 있었다. 그러기에 독이 있는 위험한 뱀만 아니라면 곡물을 보관하는 고팡이나 쥐가 많이 다니는 후원 같은 곳에 뱀이 있다 해도 나쁠 것은 없었다. 제주도의 사신숭배신앙은 이처럼 처음에는 칠성본풀이, 혹은 칠성신에 대한 신화적·의례적 차원에서 기원한 것일 수 있지만, 생태적으로도 실리성이 있어 오랜 세월 유지·계승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칠성신에 대한 사신숭배신앙이 있었기에 제주도에는 이후 여러 유형의 사신 관련 본풀이들과 신앙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본풀이의 형성에는 물론 사람들이 뱀과 관련하여 겪었던 직접적인 경험담도 많이 투사되고 반영되었을 것이다.

제주도 사신숭배신앙은 이처럼 큰굿이라는 무속적 제의 속에 칠성본풀이, 혹은 칠성의례와 같은 것이 있었기에 형성되었다. 그러기에 칠성본풀이, 혹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칠성신앙은 제주도 사신숭배신앙의 기원이며 근원이라 할 수 있다. 현용준도 일찍이 칠성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주도의 사신 신앙은 본원적으로 하나의 신앙이지만 여러 가지 사신 신앙이 각각 시간차를 두고 제주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별개의 신앙처럼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제주도에 맨 먼저 들어온 것은 일반신으로서의 사신 칠성이라 보이니, 이는 제주도에 농경이 시작될 당시거나 멀리 탐라국 시대의 일로 추정된다고⁶³⁾ 하였다.

제주도는 따뜻하고 습하여 지리적·환경적으로 뱀이 서식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그러기에 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무속적 기반이 없더라도 사신숭배신앙은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사신숭배신앙은 일부 지역에서만, 그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 사신을 칠성신으로 생각하고, 칠성신을 부를 이루게 해주는 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주도의 경우 거의 전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기에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현상이었다 할 수 있다. 인도의 암소숭배신앙을 연구한 Harriss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생활양식들은 신화와 전설로 덮여 있고, 이러한 신화적 지식들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사회적 동질성과 사회적인 목적의식을 갖게 한다고 했다.⁶⁴⁾ 제주도의 사신숭배신앙 역시 칠성본풀이와 같은 신화 및 이와 관련된 의례에서 얻은 지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전근대사회에

추할 수 있다.

62) 이기욱, 198쪽 참조 및 인용.

63) 현용준, 2002, 위의 책, 478쪽 참조.

64) 이기욱, 위의 글 210쪽에서 인용.

있어 제주도 사람들에게 사회적 동질감을 갖게 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동일한 목적의식을 갖게 한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육지쪽 칠석고사의 기원이며 근원이 된 칠성본풀이

칠성본풀이에 원래 칠성기자형 출생담이 있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칠성본풀이는 제주도, 혹은 육지 쪽에서 칠월 칠석날 밤에 왜 칠석고사나 칠성제, 혹은 칠성고사, 칠성불공 같은 것을 지내는지⁶⁵⁾ 그 기원을 해명해 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칠성기자형 출생담은 칠월 칠석날 밤 집뒤 장광에서 하늘에 있는 칠성신에게 칠성제, 혹은 칠성불공을 드리고 명과 복과 아기를 얻고 있는 것인데, 제주도, 혹은 육지 쪽에서 행해지고 있는 칠석날 밤의 칠석고사 풍경도 이 모습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육지쪽의 칠석고사는 칠월 칠석날 밤, 집 뒤 장독대 주변에 상을 펴고, 정화수, 혹은 떡을 찌놓고 하늘에 있는 칠성신에게 빌면서 가족의 명과 복을 기원한다. 칠성기자형 출생담에 나오는 칠석날의 칠성불공 모습과 육지쪽 칠석날에 행해지는 칠석고사의 모습이 같다면, 이 두 의례는 어쩌면 상호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뿌리가 같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고대에 있어 만일 육지쪽에서도 큰굿과 같은 곳에서 칠성본풀이 같은 신화가 구송되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신화와 의례를 근거로 칠석고사 같은 풍속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신화는 인간 사회의 제 의식의 기원을 마련하는 본질이 있는 것이어서, 칠성본풀이에 나오는 출생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이와 같은 칠석고사 의례가 생성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제주도 큰굿 속의 칠성본풀이는 육지쪽에서 왜 칠월칠석날 칠석고사 같은 것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 형성기원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의의가 크다.

3) 육지 쪽 구렁이업 신앙과 터주 신앙의 기원이며 근원이 된 칠성본풀이

마찬가지로 고대에 있어 육지쪽에서도 큰굿과 같은 곳에서 칠성본풀이 같은 신화가 구송되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신화와 의례를 근거로 해서 뱀을 부신으로 믿는 사신신앙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실제 육지쪽에는 이와 같은 사신숭배신앙이 남아 있다. 즉 구렁이업 신앙, 혹은 터주신앙이 바로 이것이다.

육지쪽의 구렁이업 신앙은 구렁이가 집의 재물을 지켜주는 신이라 믿어 이를 신성시하고 숭앙하는 신앙이다. 그리고 구렁이업은 대체로 집안에 거주하는 신으로 관념되고 있다. 터주신앙은 집의 터를 지켜주고 집안의 평안과 재물을 지켜주는 터주신이 있다고 믿는 신앙인데, 이 신은 대체로 집 뒤란 장독대나 그 주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신체는 대체로 터쫓가리 형태로 만드는데, 가을에 햇곡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타작한 나락이나 곡식을 항아리에 넣은 다음 그 위에 짚으로 만든 주저리를 씌우는데, 그 모양은 대개 원뿔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짚주저리는 가을고사를 전후하여 일 년에 한 번 바꾼다. 이러한 터주신앙은 지역에 따라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경상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⁶⁶⁾ 주저리 형태의 터주신앙은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 지금도 남아 있는 곳이 더러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렁이업 신앙이나 터주신앙은 칠성본풀이 혹은 이에 기반하여 형성된 칠성신앙과 같은 신앙으로 볼 수 있다. 구렁이업은 재물을 지켜주는 신이라는 점에서 그 신체 및 신

65) 육지 쪽의 칠석고사에 대한 내용은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1, 칠석고사, 칠성, 칠성고사, 칠성단지 등의 글 참조.

66) 이관호 글, 터주 조 참조, 한국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707-710쪽 참조.

적 기능도 칠성신과 같다. 터주신앙의 짚주저리는 제주도의 밧칠성에서 볼 수 있는 주저리와 그 모습이 일치한다. 그리고 신적 직능도 밧칠성과 유사하여 집을 지켜주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으로 관념되고 있다. 때문에 일찍이 장주근도 이들의 상관성을 언급한 바 있고,⁶⁷⁾ 현용준도 제주도의 칠성신과 육지쪽의 구렁이업 신앙 및 터줏가리, 조상단지 등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제주도의 사신신앙이 고대로 올라가면 제주도에 한정된 특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 본토의 사신신앙과 동일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⁸⁾ 필자는 육지쪽에 남아 있는 구렁이업 신앙이나 터주신앙은 고대에 육지쪽에서 열두 거리 큰굿과 같은 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행해졌을 때 여기에 칠성본풀이 신화, 혹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칠성제 같은 제의가 있어 이를 토대로 하여 형성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제주도 큰굿 속의 칠성본풀이는 육지쪽 구렁이업 신앙이나 터주신앙 같은 것의 기원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화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VII. 맺음말

칠성본풀이는 집안의 부를 이루게 해주는 뱀신인 ‘칠성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내력을 설명하고 있는 신화이다. 본고는 제주도 큰굿 12본풀이 중 하나이며, 일반신본풀이에 속하는 이와 같은 신화의 내용 및 특징을 고찰하고 문화사적 위상을 검토한 글이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칠성본풀이의 자료와 내용을 소개하고 신화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심방이 직접 구연한 칠성본풀이 자료는 전부 11편이 있는데, 각편에 따라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서사구조는 비슷하다. 이 신화는 하늘의 북두칠성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뱀을 초월적이고 신성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이름을 칠성신으로 하였고, 까닭에 숫자도 7을 중시하여 많은 화소에 숫자 7이 사용되고 있다. 뱀과 중의 만남으로 자식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신화는 이류교혼담으로 볼 수 있으며, 신성혼이 나타난다.

III장에서는 칠성신의 신적 성격과 직능을 고찰하였다. 신화 내용만 보면 칠성신은 부신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쫓겨다려살려움과 비뉘는 내용을 참조하면 칠성신은 원래 풍농신적 성격을 가진 신이다. 따라서 칠성신의 신적 성격은 풍농신·부신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격을 가진 신이기에 지키고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이 신을 학대하거나 박대하면 신병을 앓게 하는 신으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칠성신은 보호하고 위하면 부자로 만들어 주고, 무시하거나 박대하면 병을 앓게 하는 양가적인 속성을 가진 신이다.

IV장에서는 칠성본풀이가 구연되고 있는 제의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칠성본풀이는 현재 큰굿의 각도비뉘, 작은굿으로 칠성새남, 그리고 신년의례인 철갈이에서 구송되고 있다. 각도비뉘는 집안의 여러 공간을 지키는 신에게 집안의 안전과 평안을 기원하는 제의이고, 칠성새남은 뱀을 죽여서 신병이 생겼을 때 하는 치료의례이다. 철갈이는 신년 초에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로 이 때는 밧칠성을 모신 집에서는 주저리를 바꾸기도 한다.

V장에서는 뱀을 풍농신, 혹은 부신으로 관념했던 인식의 기저를 살펴보았다. 뱀은 알로의 탄생, 다산성, 수차에 걸친 허물벗기, 물과의 상관성, 남성적 성상징, 동면 등으로 생태상으로

67) 장주근, 2001, 제주도의 당,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38쪽 참조. 이 글에서 장주근 교수는 일반신본풀이 중 칠성본풀이는 본토의 업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재신(財神)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고 있다.

68) 현용준, 2002, 앞의 책, 463쪽 참조.

신성성을 가질 여러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많은 종교나 신화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뱀이 가진 상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풍요와 재생, 그리고 불사라고 할 수 있는데, 칠성본풀이에도 역시 뱀을 이처럼 풍요와 불사의 존재로 관념했던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VI장에서는 칠성본풀이 및 칠성신앙의 문화사적 위상을 살펴보았다. 칠성본풀이는 큰굿과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에 큰굿과 함께 그 위상이나 의의를 살펴야 한다. 큰굿은 고대 언제인가 육지 쪽에서 제주도에 들어와 전도적인 차원에서 행해졌었던 것인데, 칠성본풀이 및 이와 관련된 의례 역시 큰굿과 더불어 제주도에서 전도적으로 구연되거나 행해졌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칠성본풀이나 이와 관련된 의례는 단골신앙민에게 칠성신이 풍농신·부신이라는 관념을 심어주고, 나아가서는 사신숭배신앙을 형성시킨 것이다. 따라서 칠성본풀이 및 칠성신앙은 제주도 사신숭배신앙을 형성시킨 근원이며 모태라 할 수 있다. .

칠성본풀이 및 칠성의례는 제주도에서 사신숭배신앙을 형성시킨 모태이며 동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육지 쪽의 칠석고사나 구렁이업 신앙, 혹은 터주신앙 같은 민속을 형성시킨 모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신화는 우리 문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신화인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집>

- 赤松智城·秋葉隆, 1937, 『朝鮮巫俗의 研究』上, 조선총독부.
- 진성기, 1968, 『南國의 巫歌』(제주도무가전집), 제주민속문화연구소간.
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 장주근, 1973, 『韓國의 民間信仰』 자료편, 金花舍.
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 현용준, 1976, 『제주도신화』, 서문당.
1980,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 문창현, 1982, 『풍속무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총서12-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문무병, 1998,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 강정식·강소전·송정희, 2008,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제주대학교한국학협동과정편, 2009, 『이용옥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제주대학교한국학협동과정편, 2010, 『양창보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제주대학교한국학협동과정편, 2013, 『고순안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편, 2015, 『서순실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논저>

- 강정식, 2015,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 김동진, 2013, 「15~16세기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뱀의 양면성」, 『역사민속학』41, 한국역사민속학회
- 김선자, 2018, 『제주 신화, 신화의 섬을 넘어서다』, 북길드.
- 김영덕, 1982, 「제주도의 사신신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헌선, 2005.12, 「<칠성본풀이>의 본풀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 연구」, 『고전문학연구』28, 한국고전문학회.
- 김호성, 2018, 「제주도 칠성본풀이의 신화적 성격 연구 : 업신앙의 제주도 이입과정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무병, 1992, 「제주도 사신신앙 연구」, 『제주도 언어민속논총』, 현용준 교수 화갑기념논총, 도서출판 제주 문화.
1993,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 박병훈, 2007, 「제주도의 사신신앙-본풀이와 의례를 중심으로」, 『종교학연구』26,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 서대석, 1988, 「칠성풀이의 연구」, 『진단학보』65, 진단학회.
1991, 칠성풀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양현숙, 2006, 「제주도 뱀신화 연구-〈칠성본풀이〉와 <토산여드렛당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관호, 2011, 터주, 『한국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 이기욱, 1989, 「제주도 사신숭배의 생태학」, 『제주도연구』6, 제주도연구회.
- 이수자, 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995, 「구렁이엽 신앙의 성격과 형성기원-칠성맞이제 및 칠성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보』5, 한국민속학회.
- 2001, 「제주도 큰굿내의 신화에 나타난 가족구성상의 특징과 문화사적 의의」, 『구비문학연구』12, 한국구비문학회.
- 2004,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 진성기, 2003, 『제주도 무속논고』, 민속원.
- 탁명환, 1978, 「제주 사신신앙에 대한 소고-토산당 뱀 신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10, 한국문화인류학회.
- 현용준·현승환, 1995,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 『탐라문화』1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현용준, 2002,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 2005,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 秋葉隆·김난희 역, 「제주도의 사귀」, 『탐라문화』1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멜시아 엘리아데, 1982, 『종교형태론』, 이은봉역, 형설출판사.